인천북항 일반부두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2008년까지 1,139억원 투입 2만톤급 3선석

해양수산부는 인천북항에 총사업비 1,139억원을 들여 일반부두 2만톤급 3선석의 부두(안벽길이700m)를 민자사업으로 개발한다.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은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사업주간사인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과 사업시행자인 인천북항부두운영 대표, 협상실무단 등 4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북항 민자부두개발을 위한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인천내항 화물의 전이 처리 및 도심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로 개발되는 것으로, 앞으로 인천북항부두운영이 사업시행은 물론 50년간 무상사용하면서 운영을 맡게 된다.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자사업은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09년 준공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7월11일 본격적인 업무 개시

공사조직 3개 본부, 14개 팀에 110여명

인천항만공사(IPA.Incheon Port Authority)가 7월1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서정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76년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임기가 끝나는 3년 뒤에 초대사장의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와 항만 이용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IPA 항만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기상(69.인천항발전협의회장) 항만위원을 위원장에 추대했다.

또 2005년도 인천항만공사 준예산으로 214억 6,700만원을 책정하고 인천항만 시설사용 및 사용료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맞은 편 정석빌딩 1, 2, 5층(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3본부 14개 팀에 110여명이 근무하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7월15일 인천 송도라마다호텔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항만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